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조성’ 장성군 중장기 프로젝트 탄력

郡-LS그룹-㈜석세스뱅크장성 협약

폐광 활용 첨단 데이터중심지 주목

탄소배출 감소·보안·안전성 등 강점

장성군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에 ‘LS그룹’이 나섰다.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 상황실에서 김한중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주)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장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주), LS사우타(주)와 건동광산 부지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장성군 제공〉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 실

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길이 221m, 길이 55km에 달하는 건동광산 지하 채굴장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면, 사계절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해 냉각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높은 보안성은 물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군의 구상대로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폐광을 활용한 첨단 데이터산업 중심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장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기술 지원 ▲건동광산 기부채납 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게 돼 뜻깊다”며 “장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과 참여기업이 동반 성장·발전에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데이터센터 조성 외에도 관광산업 등 건동광산 활용 ‘사업모형’ 발굴을 위해 추후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속도 낸다

2차 토지보상·실시계획 인가 추진

연내 착공·분양…문화·관광 거점

순천시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2차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2차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차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 전체 토지의 65% 보상이 이뤄졌으며 시는 이번

2차 협의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 신청,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연향들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기반으로 투자자별 맞춤형 설명회 등 조기 분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실시계획이 인가 되면 주거용지를 시작으로 상업시설용지, 판매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등 특성에 맞춘 단계적 분양을 통해 투자 자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순천시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총 48만8천459㎡ 규모의 부지를 개발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월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했으며 이후 관련 용역도 마무리하고 이달 내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연내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녹차 22개 제품 군수품질인증 평가 통과

품질·신뢰 재확인…브랜드 가치 제고

보성군이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통해 22개 보성녹차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북재출에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품평 전문가인 9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차의 외형, 찻물의 색, 향, 맛, 우려낸 잎 등 다섯 가지 항목의 오감(五感) 관능 평가를 실시했다.

심의 결과 보성군 차 제조가공업체 24곳에서 출품한 25개 제품 중 21개 업체 22개 제품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해 군수품질인증을 교부받았다.

‘군수품질인증제’는 올해로 시행 17년째를 맞이했으며,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만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군수 품질 인증 상표가 부착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명품 보성녹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형빈(가운데) 부군수가 지난 19일 북재출에서 출품된 녹차 제품의 외형과 향, 맛 등을 심사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를 확보하고, 보성녹차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형빈 부군수는 “명품 보성녹차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길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광양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당부

1961-2005년생 홀수년도 출생자

광양시보건소는 21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1대1 전화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64세(1961~2005년생)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이다.

대상자는 전국의 일반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는 연말에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미소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해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꼭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까지 건강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검과 한방 파스를 제공하는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군, 블루베리 기초 영농기술 교육 호응

신규농업인·재배 예정자 대상…5회 과정

곡성군은 21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교육은 지난 19일 시작해 다음 달 16일까지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초보 농업인과 재배 예정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소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선도 농가 포장이다.

첫 교육은 19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대청 마당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57명의 교육생이 참석했다.

김진중 블루베리 농업마이스터가 강사로 나서 블루베리 산업 동향, 과원 조성 방법, 품종 특

성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생들은 현장 경험이 담긴 조언을 통해 재배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번 교육은 영농 진입이 어려웠던 신규 농업인이나 재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곡성군은 119농가, 38.5ha 규모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2025년 출하 규모는 280t, 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은 기초 교육부터 품질 향상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신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팍 RICE DAY’ 쌀·떡 20% 할인 판매

매달 22일 최대 5만원까지

화순군은 21일 “매달 22일 열리는 ‘화순쌀 사는 날, 화순팍 RICE DAY’(이하 라이스데이) 이벤트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쌀 소비 촉진과 쌀 재배·가공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라이스데이는 농업인의 날인 11월11일에 착안해 두 숫자를 더한 매달 22일을 행사일로 정하고, 백미 한정 20% 할인 판매를 이어왔다. 이달부터는 쌀 가공식품인 떡류도 할인 품목

에 포함됐다.

화순팍 회원에게는 1인당 20% 할인 쿠폰 3매가 제공되며, 쿠폰 1매당 최대 5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떡류 일부 품목은 자체 할인까지 더해져 쿠폰을 적용하면 최대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안전한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화순쌀의 우수한 품질과 우리 지역 쌀로 만든 화순떡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역 농가를 돕고 1인당 쌀 소비 확대와 쌀 소비 촉진에 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배치

130명 5개월간 하루 3시간 활동

여수시는 21일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37개 초등학교 인근에 하반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130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하반기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는 12월 말까지 5개월간 주 5일, 하루 3시간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 지도, 횡단보도 이용 안내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여수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6개 초등학교에 120명을 배치한 바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은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지킴이의 안전 역시 중



요하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책임감 있게 활동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위치 조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심폰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여수=김전선 기자